이달의 독립운동가 김갑·한흥교·민제호 선생

임시정부의 주춧돌이 된 동제사의 세 주역


김갑 선생 한흥교 선생 민제호 선생

7월의 독립운동가에 임시정부의 주춧돌이 된 상하이 독립운동단체 '동제사'의 세 주역 김갑, 한흥교, 민제호 선생이 선정됐다.

김갑 선생은 1917년 동제사에 가입해 활동했다. 그는 임시의정원 경상도 대표 의원, 임시정부의 교통부 위원, 군무위원회 이사, 법제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했다.

한흥교 선생은 의사로 일하며 평생을 독립활동을 펼쳤다. 한 선생은 동제사를 조직했고, 이후 비밀리에 임시정부에 서류 전달, 민족독립을 모색하는 글을 쓰고, 해방될 때까지 중국에서 독립운동 활동을 펼쳤다.

민제호 선생은 1913년 동제사에 가입했다. 상하이 임시의정원 의원, 대한민국청년단 재무부장 역임했고, 대한적십자회와 대한인거류민단 회원으로 임시정부를 지원했다.

정부는 세 선생의 공훈을 기려 김갑 선생에게 1986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한흥교 선생과 민제호 선생에게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각각 추서했다.

이달의 6·25전쟁영웅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 제2전투비행대대

"남아프리카공화국 항공 전사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다"



7월의 6·25전쟁영웅에 6·25전쟁 당시 최전방 기지에 배치돼 수 많은 전과를 올린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 제2전투비행대대가 선정됐다.

비행대대는 실질적으로 전투 임무를 개시한 11월 19일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 부산 수영, 평양, 수원, 진해, 여의도, 횡성, 오산 비행장 등 최전방기지에 배치돼 지상군 근접 지원, 적 보급로 차단 등을 수행했다.

비행대대는 참전 기간 동안 연간 95대의 F-51 무스탕 전투기와 20대의 F-86 세이버제트 전투기를 1만2,405회 출격해 적의 전차 44대와 야포 221문, 대공포 147문, 보급품 직접소 500여 개소 등을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당시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유엔 작전을 지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제2전투비행대대 참전용사들은 대한민국 무공훈장 11개와 미은성훈장 2개, 각종 훈장 1,109개, 유엔 훈장 797개 등을 받았다.

백범 김구선생 73주기 추모식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석을 역임하는 등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3주기 추모식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모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 독립유공단체장, 광복회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73년 전 흉탄에 쓰러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조국을 걱정하신 우리 민족의 영원한 스승"이라며 "백범 선생의 숭고한 생애와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함으로써 언제나 우리 곁에 살아 숨 쉬는 오늘의 정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만해 한용운 선생 78주기 추모제

민중계몽운동과 문화계몽운동을 전개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평생을 항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만해 한용운 선생의 입적 78주기 다례재와 추모제가 지난달 29일 각각 서울 성북구 심우장과 서울 종로구 선학원 만해홀에서 열렸다.

만해 한용운 선생은 민중계몽운동과 문화계몽운동을 전개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민족대표 33인의 불교계 대표로 참여하는 등 평생 항일독립운동에 앞장섰다.

6·25참전자 부상 입증 제보자를 찾습니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찾습니다. 아래의 참전자들과 활동을 함께 했거나 기억하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 **고 조일환 님**(1928.8.30)



○ **군 복무 내용**
- 1951.3.29. 육군 입대, 1952.4.17. 의병 전역(일병)
- 1951.7.6. 7사단 5연대 복무 중 1, 3, 31육군병원 입원

○ **부상 경위와 신청 부상 부위**
- 강원도 철원 낙타고지 전투에서 수류탄에 맞아 목과 다리에 부상(자녀 진술)

■ **고 오도준 님**(1926.6.11.)



○ **군 복무 내용**
- 1952.8.31. 육군 입대, 1953.9.12. 의병 전역(일병)
- 1953.2.7. 2보충대로부터 미25사단으로 전속, 1953.5.3. 육군 편입과 동시에 36육군병원 입원

○ **부상 경위와 신청 부상 부위**
- 안강전투에서 좌측 옆구리 20cm 총상(배우자 진술)

■ **고 박상록 님**(1927.10.12.)



○ **군 복무 내용**
- 1950.11.20. 육군 입대, 1951.5.15. 명예 전역(상병)

○ **부상 경위와 신청 부상 부위**
- 총상으로 팔 부상(관통상)을 입고 명예 전역(배우자 진술)

■ **필요한 제보 내용**
- 부상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지휘관이나 동료, 부하 등 진술
- 부상 부위를 직접 치료한 군의관 등 의료업무 종사자 진술
- 같은 병상 입원환자 등으로서 치료 장면 등을 직접 목격한 분 진술
- 고인으로부터 부상사실을 들었거나, 관련 사실이나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 등 진술

■ **연락처 : 보훈심사위원회 044)202-5831~3, 5955**